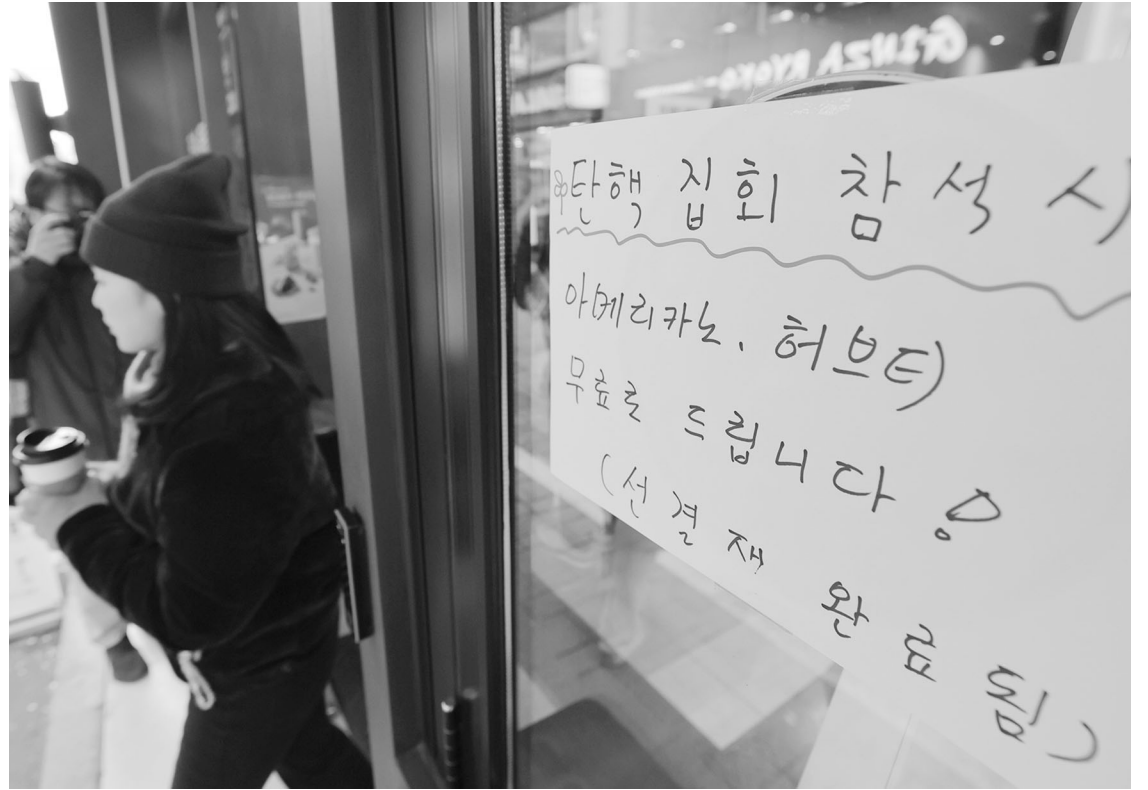




오월어머니집, 광주시 새마을회, (사)술안심터 관계자 등이 지난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떡국과 주먹밥, 어묵과 핫팩을 제6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나건호기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을 위한 커피, 김밥 등 선결제 릴레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4일 시민들이 선결제가 된 광주 동구 충장로의 한 카페를 이용하고 있다. 나건호기자

“커피 나눠요”... 금남로에서 발현된 ‘5·18 대동정신’

집회 현장 인근 매장 선결제 잇따라 상인들 “자발적 후원에 마음 따뜻” 오월어머니집 등 시민사회단체서 주먹밥·떡국·어묵 나눔 부스 운영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재표결이 진행된 지난 14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대동정신’이 발현됐다.

1980년 5월 주먹밥과 김밥 등을 나누던 광주 시민들의 정신에 이어 이날 집회 참석자들을 위해 커피와 음료값을 선결제로 후원하는 시민들의 나눔 행렬이 잇따랐다.

이날 오후 광주 충장로 ‘꾸꾸붕어빵’ 매장 앞에는 ‘윤석열 즉각 탄핵’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모인 시민들로 가득했다. 이곳에 익명의 시민이 붕어빵을 선결제했다는 소식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자 많은 시민이 모인 것.

매장을 운영하는 장연주(29) 씨는 “현재 120개가량 선결제가 완료된 상태인데, 계속해서 선결제 문의가 들어왔다”며

“따뜻한 마음 전해주시는 시민분들에 감사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가로 30개를 더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집회 현장 근처의 카페에서도 수백 잔의 커피 선결제 문의가 이어졌다.

컴포즈 커피 충장로점에는 지난주부터 시민들의 선결제가 이어지면서 총 900잔이 무료로 제공됐다.

컴포즈 커피 충장로점 운영 중인 50대 이모씨는 “오늘만 해도 10건이 넘는 선결제 문의가 접수됐는데, 여력이 안돼서 150잔 정도만 추가로 받은 상태다”며 “주문이 늘어나면서 정신없이 바빠지만 시민들이 함께 돕고 나누려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1980년 5월 계엄군의 군함발에 짓밟히면서도 주먹밥을 나누며 하나가 된 광주 시민들의 ‘대동정신’이 44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소이(25)씨는 “국민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안정적인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친구들과 집회에 참석하려고

왔는데, 다른 시민들이 이곳에 선결제를 해두고 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찾아왔다”며 “광주 시민으로서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대동정신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진다. 시민들을 위해 선뜻 나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광주 5·18민주광장에서는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어묵, 커피, 떡국 등을 무료로 나눠주는 부스를 운영하며 광주 공동체 정신을 이어갔다.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은 탄핵 주먹밥 5000여개를 만들어 나눔 부스를 운영하는 봉사자들에게 나눠주며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광주 주먹밥’을 재현했다.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앞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가 고립됐던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자발적으로 집에서 쌀을 가지고 나와 주먹밥을 써서 시민군에게 나눠준 바 있다”며 “시민 모두가 주먹밥을 먹고 힘을 내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자는 의미에서 오월어머니들이 나서 탄핵 주먹밥 나눔을 펼치게 됐

다”고 설명했다.

영광에서 프드트럭과 노점상을 하는 허장재(51)씨는 100만원 상당의 어묵을 준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추운 날 시민들이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도왔다.

허씨는 “계엄 사태를 빨리 끝내기 위한 힘을 보태고자 왔다. ‘시민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며 광주시에 어묵을 제공하겠다고 문의했더니 5·18광장에서 부스 운영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윤석열이 탄핵되고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씨는 이어 “요즘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 물가가 올라 3000원어치 핫도그를 팔면서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준다”면서 “탄핵 이후 경기가 살아나서 길거리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사)술안심터는 사랑의떡국나눔 부스를 운영하며 시민들의 든든한 한 끼를 책임졌다.

김세미가(46)씨는 “새해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안정적

인 사회가 오길 바라는 마음에 시민들과 떡국을 나누게 됐다”며 “부스를 운영한다는 소식에 운암동 하얀집에서 2000인분의 사골을 제공해 주고 지나가던 시민들이 선뜻 나서서 재료 준비를 도와주는 모습에 80년 5월 당사가 떠올라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전했다.

대동문화재단과 문화유산지킴이 회원 50여명은 금남로 특설무대에서 참여 시민들에게 핫팩 1000개를 나눠줬고,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광주 지역 장애인 단체 소속 50여명은 금남공원에서 커피차를 운영, 2000여명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음료를 나눠줬다.

배영준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장애인 단체가 이날 집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고민하다 음료 무료 나눔을 계획하게 됐다”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지역 최초 희생자였던 김경철 열사는 청각장애를 앓던 장애인이었다. 그의 뜻을 받들어 우리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연대하자는 취지다”고 밝혔다. 정성아·윤준명 기자

무기수로 24년 복역 ‘김신혜 사건’... 18일 재심 선고

자백 반복·위법수사 등 쟁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7)씨의 재심 결과가 사건 발생 28년, 재심 개시 결정 9년 만인 18일 나온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해·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재판을 연다.

김씨는 2000년 3월 완도에서 수면제를 타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버스정류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이복여동생과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성추행에 앙심을 품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로 특정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김씨가 아버지 명의로 상해·생명보험 7개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

던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반복했다. 동생 대신 교도소에 가기 위해 거짓 자백을 했으며 무죄를 호소한 것이다. 또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보험 중 상당수가 이미 해약됐고 나머지 보험들도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항변에도 법원은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교도소에 입감돼 2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 재판을 신청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범행을 재연토록 했으며 김씨의 머리와 뺨을 때리며 서류에 지장을 찍을 것을 강요하고 날인을 거부하자 억지로 지장을 찍었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법원은 ‘경찰의 강압 수사, 절차적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지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김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민현기 기자

특전사동지회 “특전사를 또 정치적 도구로 이용” 규탄

5·18 민주묘지서 참배 후 성명

특전사 예비역 단체가 12·3 비상계엄 상태를 반국가 세력의 내란 행위라고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동조한 지휘관들을 비판했다.

대한민국 특전사동지회는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12·3 비상계엄은 적을 이롭게 하

고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 반국가적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소수의 정치 군인들이 정권을 찬탈하고자 할 때마다 군부대 중 유독 특전사만을 앞세웠다”며 “그 결과 특전사는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대로 전락해 사기가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한밤중 12·3 비상계엄 선포에

‘채무 갈등’ 고흥서 지인 살해 뒤 유기한 50대 구속

채무를 갚지 못해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고흥경찰은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지인 B(5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에는 고흥군 한 교회 주차장

으로 이동한 뒤 승진 B씨를 차량에 버려두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갈등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후 “직장 동료가 휴대전화가 꺼진 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 수사에 나섰다.

1980년 비상계엄의 악몽을 떠올렸을 광주 시민과 국민 모두에게 특전사 예비역으로서 사죄드린다”면서 “국군 통수권을 갖고 부당한 명령을 내린 윤 대통령과 정치군인들은 내란·이적죄를 물어 엄벌하고 영문모르고 투입된 중·하위급 간부와 장·사병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특전사동지회 관계자는 “다시는 대한민국 특전사 장병들이 반국가 내란 세력에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역 단체로서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세력 척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민현기 기자

차량이 발견된 교회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한 경찰은 14일 오전 3시께 보성군 벌교읍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전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